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예술스튜디오

다시 문 여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culture | art

문 닫은 학교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관이 수려한 산촌, 농촌, 어촌의 분교가 대부분이고 일부 규모가 큰 본교도 있다. 이러한 폐교를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민속문화 및 예술체험학습(연극, 탈춤, 농악, 음악, 시각예술 등)장은 물론 도시와 소외된 농어촌 마을의 교량적 역할과 기초예술 활성화 또 문화육구 총족에 기여하여 다시 문 여는 학교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을까.

전 병 관 오궁문화센터 회장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예술스튜디오 현황

1994년에 산간 오지 농촌 분교를 시작으로 전국 1143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후 2003년에는 2천여 개, 2004년에는 3천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농촌 교육시설의 낙후로 인한 탈농촌 현상이 빚어낸 현실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의 여러 활용방법 중 상당 부분 예술스튜디오로서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하고자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였지만 매각·용도변경 등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담당자의 말이었다. 폐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영순위로 폐교 재산을 매각하여 특정 세입으로 해당 지역 시·군 교육청에 배정하여 직접교육에 투자하고 2003년도에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용 농업생산 기반시설 복지사업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 등으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인들도 폐교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선으로 수의계약 임대(10년까지) 또는 매입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폐교를 예술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곳을 살펴보면
- 호남권: '사단법인 오궁문화센터' '진안미술창작스튜디오' '도화지' '동리극약당' '장안 전통문화예술촌' '달오름미술관' '도평창작예술촌' '신안리미술창



농가에 숙박하면서 농촌체험관광 중인 어린이들

작실' 경북미술문화원'

- 충청권: '서해미술관' '논산 미술창작스튜디오' '창작마을'

- 강원도: '무이미술관' '노랑항아리'

- 경기도: '창문문화센터' '아름다움만들기'

- 영남권: '남해 예술창작스튜디오', '내곡미술촌' 등으로,

이는 오궁리 미술촌에서 2003년에 창립한 『전국 문 달은 학교 연합예술제』를 진행하면서 파악된 현황인데, 공립으로 운영되거나 개인·단체예술인들이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작업 공간, 숙소, 전시장, 세미나 실, 교육 공간, 연구소 등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연 임대료가 5%에서 1%로 하향되어 창작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일부 교육청은 예술인의 경제적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5%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예술인들이 임대를 포기하거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장기적으로 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와 기초예술 보급 공간 확산을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경제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폐교 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오궁리 미술촌 사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작업실을 구하던 차에 폐교

를 이용하여 공동 작업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제의가 있어 1995년 3월 2일 문 달에 된 학교를 4일 전에 학교측의 배려로 입주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장소는 먼지·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여러 곳의 폐교 중 주변에 인가가 없는 오궁초등학교로 결정하여 오궁리 미술촌(현, 사단법인 오궁문화센터)이 설립되었는데, 참여작가는 조각 2명, 한국화 2명, 서양화 2명, 설치미술 1명, 판화 1명, 서예 1명(대학교수 5명, 직장인 3명, 전업작가 1명)이며 <오궁리 미술관 개관 기념전>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미술인 공동 스튜디오가 탄생된 것이다.

입촌작가 8명은 직장, 집, 스튜디오가 각각 떨어져 있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창작활동에 불편을 느껴 이중 일부 작가들은 미술촌으로 이사를 하여 생활하며 스튜디오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직장 출퇴근의 문제점과 공동 생활에서 오는 갈등, 외로운 생활 등의 어려움으로 미술촌을 떠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창립 후 여러 가지 애환도 많았으며 오궁리 미술관이 창작스튜디오로 자리매김하는 데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기 창립 멤버들이 직장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현재는 2기 오궁리 미술촌 작가 9명이 가족 22명과 함께 입촌하여 생활하고 있다. 생김새는 물론 성격이 전혀 다른 9인 9색의 작가(2명은 부부 작가임) 가족이 모여 일곱 가족이 문 달은 오궁초등학교에서 한 가족으로 창작 생활, 가정생활,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텃밭도 가꾸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술촌의 아이들 일곱 명 중 한 명을 뺀 여섯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난

복 많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자연의 숨결을 벗삼아 이 지역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이곳 작가들에겐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가온다.

개성도 강하고 자신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작가들이 모여 사는 미술인 공동체라면 문제도 많을 법하지만 오궁리 미술촌 작가들의 '욕심 없음'은 이를 뛰어넘어 오궁리 미술촌만의 잔잔한 문화를 만들고 있고 또한 사람의 숨결이 물씬 풍기는 창작활동을 위해서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궁리 미술촌에서는 <'97 동계 U대회 기념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및 여러 차례의 기획 단체전과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자비를 들여 기초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실과 일요미술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대학원 연합예술제>, <미술 이해를 위한 워크숍>, <입체·설치미술제>를 운영하였으나 문화예술지원 부족과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데서 오는 한계로 인하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제3회 전국 문 달은 학교 연합예술제』(매년 10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와 『제1회 오지 농촌마을 아름다운 삶 만들기』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인데 현실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이나 보조금이 지원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폐교 재산 관리지침과 폐교 재산 관리 운영규정으로 10년 동안 6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데 임대 관청에서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 법 제도는 부담이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월세를 내고 사는 구멍가게나 일반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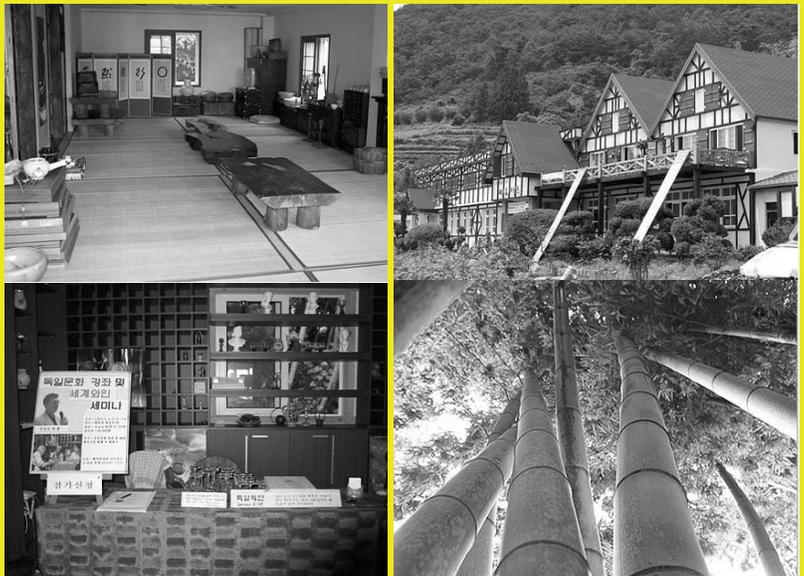
아이들이 자연의 숨결을 벗삼아 이 지역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이곳 작가들에겐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가온다.

시설도 임대인이 관리 유지를 해주는 것이 관례인데 하물며 국가기관이 할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궁미술관은 1968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37년이나 되었고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은 1986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18년 된 건물인데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새어 거주 및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작품 훼손 등이 염려되어 수없이 건의를 하였지만 폐교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투자를 할 수 없는 현행법 제도에 따른다는 것이다. 노후화와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철거는 가능해도 이천만 원의 예산이면 시설보수로 유지가 가능하고 시설관리를 하면 20년은 족히 사용가능한 데도 그 "투자는 불가능하고 7~8천만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철거는 가능하다"는 게 관계관의 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04년 포 광역단체 교육청산하 경리 담당과 폐교 재산 관리자 연수회에서도 "홍물화되어 가고 있는 폐교 시설들의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하여 국가 재산을 관리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아무도 이의를 제

왼쪽 · '해오름 예술촌의 전통다실(위)과 와인문화관(아래), 오른쪽 · 남해의 '해오름 예술촌'의 전경과 대나무숲



기하지 않았다. 이는 폐교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관리 운용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079호, 제 2조 2항)에 따라 폐교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계획이 현실 환경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지자체 교육청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하여 '기초예술교육'과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매각처리를 중시하고 절대적으로 작업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시설 보수를 하여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 문화예술 산업화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유능한 작가들에게 예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문 닫은 학교 현실과 활용방안

문 닫은 학교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촌, 농촌, 어촌의 분교가 대부분이고 일부 규모가 큰 본교도 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이거나 도심에 있는 문 닫은 학교는 대부분 매각처리가 임대가 된 상황이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규모가



전라도 영암군
군서면의
군서남초등학교
(폐교)를 '달오름
미술관'으로 개조한
6명의 작가들
(왼쪽부터, 김근태
이성우 김호원 원동석
김금남 박일정)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예술창작 공간은 도시인과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인구유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큰 학교와 논 가운데 위치한 학교, 오래된 학교는 방치되어 흉물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폐교를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친 자연, 문화예술에 관한 도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산간 오지 마을에 위치한 문 닫은 학교가 천혜의 조건이므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 닫은 학교 주변 논밭을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된 가족 주말농장과 펜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전통 음식류, 약초 및 산채, 마을 농특산물 가내수공업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기농 체험 학습장을 조성한다면 도시인과 지역민, 또 기관, 단체들이 유대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러한 농촌 체험의 장과 연계하여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한 예술창작 공간을 '전통 민속문화 및 예술체험학습(연극, 탈춤, 농악, 음악, 시각 예술 등)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인구유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는 제도적, 재정적 도움을 받아 전문 문화예술인이 문 닫은 학교를 '예술창작스튜디오'로서의 활용뿐 아니라 그 역할을 확대하여 제도적으로 지역문화 예술센터 등 문화 시설화하여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소득증대, 환경,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방법들은 문 닫은 학교가 도시와 소외된 농어촌 마을의 교량적 역할과 기초예술 활성화 또 문화육구 충족에 기여하여 다시 문 여는 학교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문 닫은 학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